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 2학년)

오늘의 민수



김혜정 글 / 문학과지성사 / 212쪽

중학교 2학년 반 번

이름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청소년 교육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즐겁게 책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독서에 대한 다음 명언을 따라 쓰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이다.

-W. 워즈워스





독서 활동지 차례

	독서 활동 내용	페이지
독서 준비	책의 구성 살펴보기-요모조모 살펴요!	4
독서 중	낱말 뜻을 파악하며 읽기	6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7~8
	장면을 분석하며 읽기	9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10
독서 후	표현하기	12~13
	설득하기	14~15
	타임라인 공유하기	16
	성별 바꿔 쓰기	17
정리하기	책 평가하기, 독서 활동 점검하기	19
	마음에 남은 문장 미니 북 만들기	20

독서 준비





독서 준비

▣ 책의 구성 살펴보기 - 요모조모 살펴요!

1. 책의 제목과 앞표지에 그려진 두 인물과 그림의 구도, 글자체 등 앞표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며 느낀 첫인상을 적어보세요.

2. 앞표지에 그려진 두 인물의 모습은 어떤가요? 표지에 그려진 정보들을 통해 두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상상하여 적어보세요.

3. 뒤표지의 대화를 읽고 두 '민수'의 사생활이 어떻게 예상하여 적어보세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62세 '철부지 노인'의 사생활	VS	도저히 알 수 없는 15세 '애어른 소년'의 사생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감독 '김민수'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소년 '주민수'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찼하게 통통한, '민수'와 '민수'의 우정과 전쟁!		
“만화를 좋아한다고 다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고, 김 감독은 왜 그러냐고 물었다. “감독님은 성공했으니까 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독이 성공 못 하셨어도 그리 말씀하셨겠어요?” “그럼 넌 내 나이 돼서 뭐라고 말할 건데? 만화 그려봐야 잘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예 시도조차 안 했다고 할래? 그래서 참 잘했다고 말할 거야?”		

독서 중





독서 중

▣ 낱말의 뜻을 파악하며 읽기

※ 다음은 『오늘의 민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가) 김 감독은 담배를 좀 줄이㉠(㉠든지/던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도우미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외에 다른 일은 ㉡(㉡웬만하면/웬만하면) 하지 않았다.

(다) 김 감독은 최 피디에게 ㉢(㉢알은척/아는 척)도 하지 않고 집을 향해 걸었다.

1. (가)의 ㉠은 ‘-든지’와 ‘-던지’ 둘 중에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의 문장을 참고하여 ‘-든지’와 ‘-던지’의 의미나 기능에 대해 적어보세요.

-든지	-던지

2. (다)의 ㉢에 들어갈 말로 ‘알은척’과 ‘아는 척’ 둘 중에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의 문장을 참고하여 ‘알은척’과 ‘아는 척’의 뜻에 대해 적어보세요.

알은척	아는 척

3. ㉠~㉢에서 알맞은 단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줄이던지 - 웬만하면 - 아는 척 ② 줄이든지 - 웬만하면 - 아는 척
 ③ 줄이든지 - 웬만하면 - 알은척 ④ 줄이던지 - 웬만하면 - 알은척
 ⑤ 줄이던지 - 웬만하면 - 아는 척



독서 중

▣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 『오늘의 민수』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1~2)

(가) “너 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네 신체 나이가 열다섯이라고 네가 열다섯 살인 것 같지? 절대 아니다.” 민수는 이해가 가지 않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니까 말이다, 사람의 나이라는 건 신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정신적인 게 더 크다고. ㉠사람 마음속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이 살고 있어. <중략> 신체적인 나이와 정신적 나이가 똑같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나) 김 감독은 이대로 각색 작업에 들어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 했다. 평소에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감독이지만, 작업을 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다. 영화라는 건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기에 최대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아집과 원칙은 엄연히 다르다.

(다) “감독님, 화 좀 내지 마세요.” 민수가 옆에서 지켜본바 김 감독은 화를 자주 냈다. 민수는 진심으로 김 감독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화가 나니까 화를 내지. 너는 화 안 내냐?” “네. 전 잘 안 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면 생각해요. 이 일이 과연 한 달이나 1년 뒤에도 화가 날 일인가, 그러면 화가 좀 덜 나요.” <중략> ㉢“그럼 년 좋은 일이 생겨도 내년에도 좋아할 건지 따져보고 좋아하냐?” “그건 아니에요.” “난 화나면 화낼 거고, 좋으면 좋아할 거다. 숨기거나 억누르고, 사는 거 딱 질색이라고.”

1. (가)의 ㉠을 읽은 뒤, 적절한 반응을 한 사람을 골라보세요.

- ① 지호 : 그러니 때에 따라서 어린 척, 나이 많은 척 연기를 잘해야 해.
- ② 소리 : 『오늘의 민수』에서 김민수는 때때로 주민수의 또래 친구처럼 느껴져.
- ③ 봄이 : 어른은 어른답고 아이는 아이 같아야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 ④ 구름 : 신체적인 나이와 정신적 나이가 똑같아야 정상이야.

2. (가)~(다)에는 62세 김민수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을 통해 드러난 김민수의 성격에 대해 적어보세요.

㉠	㉡	㉢



독서 중

※ 『오늘의 민수』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3~4)

(가) 민수는 문손잡이를 잡고 흔들었다. 문은 딱 닫혀 있어서 손잡이를 흔들수록 민수의 손만 아팠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고, 뭉툭한 쇠 손잡이에 손바닥 근육이 세계 부딪혔다.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랐다. 민수는 아랑곳없이 계속해서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그가, 가버렸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채 기사를 쓴 박 기자가 원망스러웠고, 민수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낸 채 떠나버린 김 감독이 미웠다. 가장 싫은 건 바로 민수 자신이다. 민수는 자신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났다. “미안해요, 감독님.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문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그러잡은 채 김 감독을 향한 혼잣말을 내뿜었다.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 민수는 ㉡‘나라면 화법’을 사용했다. 이건 제법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이 상황에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이다. 나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 고민하는 건데, 다른 사람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걸 알면 걱정이 줄어든다.

(다) 민수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최 피디에게 내밀었다. 어제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찾아 만들었다. 고소 취하 조건으로 민수가 여름방학 4주 동안 평일 2시부터 5시까지 김 감독의 작업실에서 심부름을 한다는 내용이다. ㉢3일 이상 빠질 시에는 고소 취하를 취소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3. ㉠~㉢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15세 주민수의 성격을 다음 표에 적어보세요.

㉠	㉡	㉢

4. (가)~(다)를 시간의 흐름에 맞게 재배열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또한 윗글을 참고하여 15세 민수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빈칸을 채우세요.

	➔		➔	
성격 변화	➔	성격 변화 배려, 신뢰	➔	성격 변화



독서 중

▣ 장면을 분석하며 읽기

※ 다음은 『오늘의 민수』의 장면들입니다. 장면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가) 바깥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1층에 누가 와 있는 듯하다. 눈이 건조해서 잘 떠지지 않는다. 민수는 침대 밑에 둔 인공 눈물을 양쪽 눈에 두 방울씩 넣은 다음에야 제대로 눈을 떴다. 1층으로 내려가니 누나 자령이 거실 탁자 위를 정리하고 있다. “그냥 놔둬요.” “아우 자알한다. 이게 뭐냐? 또 게임하다가 늦게 잤지? 건강에 안 좋다고 컵라면도 좀 작작 먹으라 했잖아. 과자에 컵라면에, 하여간.” “내가 치운다고.” 민수가 자령이 서 있는 탁자 쪽으로 갔다. 손이 빠른 자령은 벌써 어질러졌던 거실을 다 치워가고 있다. 게임기 선과 스틱은 가지런히 정리되었고, 과자 봉지는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자령은 청소기를 가져와 바닥을 밀었다. “게임 좀 작작해.” 웅웅대는 청소기 소리에도 불구하고 자령의 잔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친구가 재밌다고 해서.” “그래서 몇 시까지 했어?” “그냥 뭐.” “2시?” 민수는 게임기에서 시디를 꺼내 케이스에 넣으며 탄성을 피웠다.

(나) 2주 전, 엄마 앞으로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하나 날아들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며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그걸 본 엄마는 요즘은 보이스 피싱을 이런 식으로도 다 한다며 무시했다. 하지만 진짜로 경찰서에서 온 게 맞았다. 고소인은 한 법무법인이었다.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다. <종략> 경찰서에서는 고소를 취하하려면 합의금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수는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수는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다 인터넷 검색으로, 오늘 한국대에서 피터 김의 인터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니 사실은 어떻게든 합의금을 없애거나 줄여볼 요량으로 무작정 한국대로 찾아갔다.

1. (가)와 (나)는 두 민수를 소개하는 프롤로그입니다. (가)와 (나)의 민수는 각각 어떤 민수인가요?

(가)	(나)

2. (가)와 (나)는 두 민수가 뒤바뀐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인물의 대비가 주는 효과에 대해 적어보세요.



독서 중

▣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1. 『오늘의 민수』에서는 15세 민수와 62세 민수가 같은 ‘오늘’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래가 아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연상이나 연하의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친구와 나눴던 특별한 ‘오늘’을 적어보세요. 만약 아직 만난 적이 없다면, 원하는 연상이나 연하의 친구를 상상하며 그 친구와 나누고 싶은 ‘오늘’을 적어보세요.

2. 외국에는 유명 인사와의 점심 식사를 경매로 붙이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의 민수』에 등장하는 어른과 점심 식사를 나눌 수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어른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묻고 싶은 질문 목록을 만들어보세요.

점심 식사를 나누고 싶은 인물	질문 목록

독서 후





독서 후

▣ 표현하기

※ 다음은 『오늘의 민수』의 본문 일부입니다.

“인물이 살아 있지 않아요.”

그 후로 김 감독은 수십 차례 초고를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주인공 인물이 원고에서 튀어나와 움직이는 환상까지 보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로가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 만들어냈음에도, 지로가 어떤 아이인지 느껴지지 않았다. 영화에 등장하는 지로는 열다섯 살이지만, 김 감독은 지로가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를 자서전 쓰듯 썼다.

1. 윗글은 62세 민수가 「우주에서 온 이다」의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벽에 막히는 장면입니다. 62세 민수가 부딪힌 장벽은 인물-캐릭터 만들기인데요.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살아 있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시나리오 속 인물의 자서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의 민수』 책 내용을 토대로 62세 민수가 만든 ‘지로’의 자서전을 상상하여 작성해보세요.

「우주에서 온 이다」 : 지로는 누구?

<p>.....</p> <p>.....</p> <p>.....</p> <p>.....</p> <p>.....</p> <p>.....</p> <p>.....</p> <p>.....</p> <p>.....</p>
--



독서 후

※ 다음은 『오늘의 민수』의 본문 일부입니다.

“캐릭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격이지. 네 만화 같은 일상 이야기는 성격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성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해. 그게 바로 캐릭터야. 멍멍 같은 경우, 멍한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푹푹하게 굴면 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왜 악역이 착한 행동을 하면 의심하잖아.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진 않을까 하고.” “하지만 한 가지 모습만 갖고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매번 착하지는 않으니까요.” “현실에선 그렇지. 하지만 이야기에선 좀 달라. 캐릭터에 변화를 주려면 그에 걸맞은 사건이 있어야 해. 아무 계기 없이 변화해버리면 만화를 보는 사람은 헛갈릴 수밖에 없어.”

2. 윗글은 15세 민수가 「멍멍과 마요」의 웹툰 작업을 하다가 벽에 막히는 장면입니다. 15세 민수가 부딪힌 장벽 역시 인물-캐릭터 만들기인데요. 62세 민수는 15세 민수에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합니다. 『오늘의 민수』 책 내용과 62세 민수의 조언을 토대로 ‘멍멍’이 겪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보세요.

「멍멍과 마요」 : 멍멍의 사건 수첩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독서 후

■ 설득하기

※ 다음은 『오늘의 민수』의 본문 일부입니다.

“너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기자님이 감독님 팬이라며 묻기에 저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막 감독님이 은퇴하실 것처럼 말해서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민수는 김 감독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네에?” 민수는 만화 속 성우의 코맹맹이 목소리를 흉내 내어 애교스럽게 말했다. 민수가 이 목소리를 내면 김 감독은 허허 하고 자주 웃었다. “네가 뭔데?” “네?” “네까짓 게 뭔데 내 이야길 하고 다녀? 너는 내가 고용한 알바생이야. 그것도 네가 돈이 없다고 하도 사정하는 게 불쌍해서 고소 취하해주려고 그런 거고. 그런데 네가 은혜를 이렇게 갚니?” <중략>

“뭘 실수? 네가 한 걸 실수라고 생각하니?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야. 실수는 너 같은 처지도 모르는 녀석을 내 옆에 둔 걸 말할 때 쓰는 거지. 주제도 모르는 너와 상대를 한 내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 누굴 탓하겠니.” <중략>

“정말로…… 저를…… 불쌍하게…… 보셨어요?”

1. 윗글은 15세 민수와 62세 민수가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15세 민수와 62세 민수의 갈등에서 두 민수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2. 15세 민수와 62세 민수의 갈등은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었든 서로의 상처이자 사생활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두 민수는 왜 그랬을까요? ‘15세 민수’ vs ‘62세 민수’의 입장 중 지지하는 입장을 골라 두 민수를 대신하여 서로를 설득해보세요.



독서 후

3. 2번에서 나눈 설득의 대화를 다음 표에 정리해보세요.

15세 민수	VS	62세 민수
--------	-----------	--------

나의 입장은?

15세 민수
<p>친구들의 근거 :</p>

62세 민수
<p>친구들의 근거 :</p>

4. 설득하기를 마친 후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독서 후

▣ 타임라인 공유하기

※ 『오늘의 민수』에서 두 민수는 한 달간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제목의 단어 ‘오늘’은 두 민수가 공유했던 매일을 의미하는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토대로 두 민수가 공유했던 시간을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다음 빈칸을 자유롭게 채워보세요. (다양한 SNS의 형식을 참고하여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정리하기





정리하기

▣ 『오늘의 민수』 책 평가하기

1) 이 책에 별점은 몇 점을 줄 것인지 점수만큼 색칠해보세요. (10개가 만점)



2)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점에서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써보세요.

▣ 『오늘의 민수』의 독서 활동 점검하기

1) 자신의 독서 활동을 돌아보며 잘한 만큼 색칠해보세요. (5개가 만점)

· 책을 읽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샅폈나요?



· 책을 즐겁게 능동적으로 읽었나요?



· 읽기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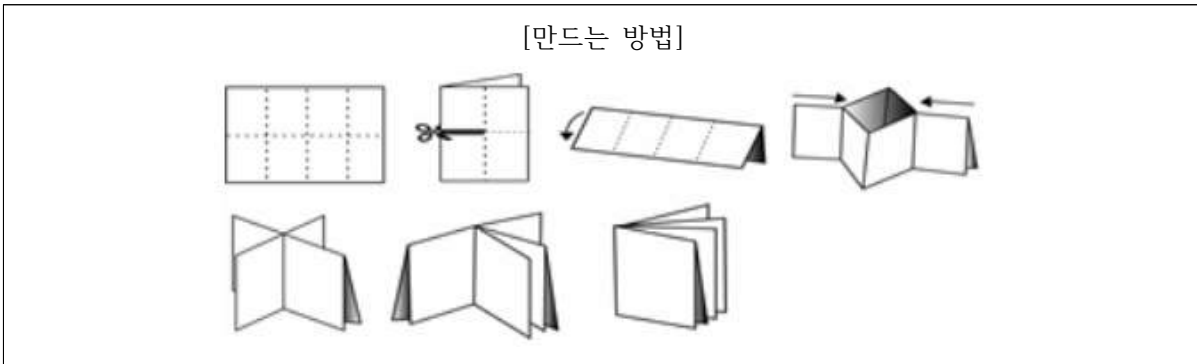
2) 이 책의 독서 활동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정리하기

▣ 마음에 남은 문장 미니 북 만들기

※ 아래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여 8쪽짜리 미니 북을 만들어봅시다. 미니 북의 각 쪽에는 『오늘의 민수』를 읽고 나서, 마음에 남은 문장을 골라 책을 보고 베껴 써보세요.



* 점선은 접고 실선은 가위로 오릅니다.

6쪽 : 본문⑤	5쪽 : 본문④
7쪽 : 본문⑥	4쪽 : 본문③
8쪽 : 뒤표지	3쪽 : 본문②
1쪽 : 앞표지	2쪽 : 본문①

입시와 경쟁의 단단한 교육 현실 속에서 미래 교육의 싹을
틔워줄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응원하는 작가들의 메시지

*

“선생님들이 한 권 읽기를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많은 혼란과 의문으로
머리가 벌벌 끊게끔 만들어야
세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 김 훈

*

“정답을 가르쳐 왔던 학교가,
책을 통해 정답 외에 다른 답들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즐거운 경험이자 시도이며,
이를 통해 교육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 은희경

*

“여러분 각자가 항상 배낭에
책 한 권을 넣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 Gabriel Garcia Marquez



문학과지성사